+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미약했던 분야를 강화하고, HD화와 3D시장에 투자하겠다

소니 코리아에 벚꽃 향기와 함께 새로운 봄바람이 불고 있다. 벚꽃 향기를 몰고 온 봄바람의 주인공은 '야마모토 켄이치' (B&P Division Company) 사장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야마모토 사장은 사원들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다양한 계획들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만큼 한국시장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방송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의 사려 깊은 모습을 본지에 담았다.

한국에서 일하게 된 소감

한국에 와서 스텝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에 놀랐습니다. 자기영역에서 철저히 일하는 모습이 앞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스텝들은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든 그 목표를 도달하겠다는 정신력이 투철하고 강합니다. 스텝들이 생각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스텝들의 이런 자세가 한국의 특별한 문화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운영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관

소니 코리아가 담당하는 카테고리가 많고,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1등인 영역이 있는 반면 뒤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기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씩 도달하고 있는 목표가 있고, 증가하고 있지만 조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찾는다면 빠른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스텝들에게는 높은 잠재력과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도전할 부분이고, 어떻게 하라는 힌트를 주면서 지원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곧 제가 해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한국 방송시장에 대한 분석

일단은 HD의 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3년 내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자체분석결과 방송시장은 80%는 HD화 됐지만, 케이블은 60~70%, 프로덕션은 50%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HD화 해야 될 시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공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한국시장에 선보이게 될 주력제품 라인업

올해는 크게 3가지의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관련 라인업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엔드로 기존의 HD보다 더 고화질의 하이엔드 HD에 주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CMS장비 소넷스라는 네트워크 솔루션, MAM을 소개합니다. 2010년에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이번 'KOBA 2010' 에서도 이 분야 위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SONY

야마모토 켄이치
소니 코리아
B&P DIVISION COMPANY 사장

한국 방송시장의 3D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도 연관되는데,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는데 상당히 발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D 시장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6월에 열리는 월드컵이 3D가 대중화하고 진전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소니는 이번 월드컵의 주요 스폰서 중 하나로 여러 경기를 3D 콘텐츠로 제작하여 블루레이로 낼 계획입니다. 7월에는 3DTV도 출시될 예정으로 여러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D 관련 선보이는 방송장비

세계적으로 3D 붐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조합만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HD 3D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방송사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고화질의 소형카메라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HD P1이라는 카메라를 출시했고, 기존 소니의 하이엔드 시스템 카메라와 동일한 품질을 제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품은 3D 박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3D를 제작할 때 리그를 이용해 카메라를 위치시키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카메라의 포지션 관계 조정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전기적으로 3D 박스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 각각의 축이 틀어지는 부분을 교정하고 조절해서 완전한 3D 시그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야하는 방송사에서 특별히 필요한 장비가 될 것입니다.

미래 방송 산업의 흐름

첫 번째는 SD에서 HD로 넘어가는데 잠재력과 여력이 남아있고, HD 전환은 향후 몇 년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G라는 기술에 대한 흐름일 것입니다. 현재 HD의 데이터량이 1.5Gbps라고 봤을 때 향후에 고화질이 진행될 것이며 관련 장비가 나올 텐데,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1080 60P가 구현돼야 하고 그것은 데이터량이 2배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3Gbps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3D를 하기 위해서는 1.5Gbps 2개를 L, R로 구성하던 것을 합쳐 케이블 한 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분야들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네트워크의 발전 가능성을 대비해 소니에서는 소넵스, CMS, MAM 등 독특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4K로 변화할 것이므로, 이것에 관련한 다양한 준비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